◉ 연중 제 28주일 강론

"둘이서 마시노라니 산에는 꽃이 피네/한 잔 먹세, 또 한 잔 먹세 그려/나는 취해 이만 자려니, 자네는 갔다가/내일 술 생각나면 거문고 품고 찾아오게"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701~762)이 지은 <산중대작>이란 시입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은자들이나 개벽을 꿈꾸고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이들은 한결같이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 영욕에 대한 집착이나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자유를 버리는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지붕이었고 땅이 누울 거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대에서 그릇된 권력이나 모순된 사상에 저항했던 자유인들과 신앙의 참된 믿음 안에 삶의 모습을 바꾼 이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내 실망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닌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자, 낙향하여 세상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며 끝내 은둔의 삶으로 생을 마치거나, 혹은 정처없이 떠돌며 술로 인생을 망치거나 하지 않고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하였다는 뚜렷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성 바오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 12~13)

사실 세상을 이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승리와 넘치는 기쁨의 자유가 자신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느님 은총의 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살았으며 눈으로 본 듯한 확신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집, 그 천상의 잔치를 즐길 줄 알았습니다. 이는 그 같은 삶을 지상에서 먼저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신앙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르낭'이라는 신학자는 자유인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갈릴래아를 두루 돌아다니셨다. 그런데 수세기에 걸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 점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얽매임 없는 자유와 축제를 사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자유와 축제의 삶을 보고 경직된 당시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림으로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루카 7, 34)라고 비난했겠습니까?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 이 세상에서부터 풍요를 살 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한 잔치

술에 대한 예찬론자이며 지극히 애주가였던 이백은 평생 은둔하고 싶은 욕망과 출세하고 싶은 욕망의 극단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객사합니다. 그러나 장차 오게 될 하느님 나라의 천상 잔치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이사 25, 6)

그날, 장차 오게 될 하느님 나라에서의 흥겨운 잔치의 주된 내용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잔치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민족의 편협된 이기주의와 국수주의를 떠나 보편된 희망의 구원을, 그 축제의 잔치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음식으로는 인간적인 흥겨운 술과 살지고 기름진 음식이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겨레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덮개를 없애시어 눈물과 죽음을 치워주신다는 영적인 선물도 아울러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이기심에서 허우적거렸던 우리들, 세상이 이끄는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의 빛을 가렸던 너울과 덮개가 사라져, 비로소 우리가 꿈꾸어야 할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 미련과 집착으로 인하여 흘렸던 모든 눈물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에 찬 희망이 있었기에 모든 신앙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확신에 찬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 13)

이 같은 희망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치르는 잔치인 성찬례는 보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잔치이며, 하느님 친히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의 손길을 뻗치신 거룩한 친교를 모범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형제적 친교의 잔치이며, 구원된 자유인이 누리는 지상에서부터의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같은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분 초대에 응답하는 희망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합니다.

배광하 신부 〈춘천교구 겟세마니피정의집 원장〉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뇌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묵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 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이민자들을 위한 미사

일시: 10월 19 오후 2시
장소: 해밀턴 주교좌성당
본당과 공소에서 별도 미사는 없습니다.

◉ 성모회 단합모임 안내

오는 11월 1일(토) 오후 6시에 교육관에서 공소 자매님들의 단합 모임을 가집니다. 오셔서 맞난 음식과 즐거운 담소도 나누세요

문의 : 이클라우디아 성모회장 (519-570-4790)

◉ 음악의 밤 안내

11월 28일에 안토니다니엘성당에서 주최하는 음악의 밤에 우리 공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힘찬 화음을 위해 노래에 관심 있는 교우는 연습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단결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문의: 김 율리안나 성가 단장 (519 271 9418)

◉ 사제관 꾸미기 협조 안내

그동안 교우들의 협력아래 공소 교육관이 아름답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제관을 꾸며할 시간입니다. 현재 사제관의 단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몇몇 품목이 더 필요 합니다.

* 소파 (1인용 과 2인용), End Table Set,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등

문의 : 이명희 관리부장 B) 519-894-3533
H) 519-896-9628 C) 226-338-0679

◉ 공소 기금 마련 컴퓨터 점검 행사 안내

성능 향상을 위해 내부 먼지 제거, 바이러스 치료 등을 해드립니다.(비용:$50, 부품비는 별도)

일시 : 10월 12(일)/25(토)/26(일) 10 ~ 오후 4시

장소 : 교육관

◉ 10월 구역모임

▶1구역: 10/25(토) 오후 6시, 박재영형제집
▶2구역: 10/25(토) 미사후 교육관
▶3구역: 10/25(토) 오후 5시, 노동원형제집
▶4구역: 10/24(금) 오후 7시, 박루피나자매집
▶5구역: 10/25(토) 오후 6시, 김호철형제집
▶6구역: 10/25(토) 오후 7시, 장철원형제집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3주년이 되어 갑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 택종)**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주간 전례

▶10월14일(화) 오후 8시, 연중 제28주간화요일
▶10월16일(목) 낮 12시, 연중 제28주간목요일
▶10월17일(금) 오후 8시, 성이냐시오순교자기념
▶10월18일(토) 낮 12시, 성 루카복음사가축일

◉이번 주는 성소후원회 회비 내는 날입니다.
성소 후원 회비는 3개월에 한 번씩 파나마 국제 선교회로 $1,500 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그곳에서 선교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

사순 2주, 3주 주님의 탄생과 수난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일시: 2009년 3월10일 - 3월 24일 14박15일
순례비용: $3,500(추가 비용 없음)
신청마감: 2008년 11월 23일(선착순 30명)
신청: 선교부장

2008-40 2008. 10. 12.

연중 제 28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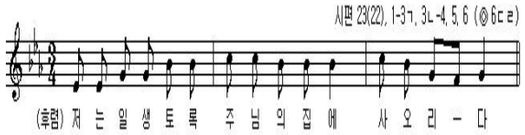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례

해 설 김근효 **차주 해설** 신계연

화 답 송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저희의 희망찬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54) 주님은 나의 목자
봉 헌 (220) 생활한 제물
성 체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퇴 장 (406)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독 서

10월	12일	박용대	박명옥
10월	26일	박순응	박복순
11월	02일	이 민	이활란

봉 헌

10월	12일	노재현	노정은
10월	26일	노동원	노성은
11월	02일	박순응	박복순

복 사

10월	12일	구하람	김건우
10월	26일	박규환	노승범
11월	2일	구한힘	이수민

천 교

10월	12일	백합	10 월 26일	신비
11월	2일	환희	11 월 9일	영광